

노후부품 결합 정기점검서 왜 못 잡나

가동 30년 한빛원전 1호기 또 중단...불안감 고조

3·4호기도 40년 수명 핵심부품·설비 잇단 교체

올해로 가동된 지 30년이 된 한빛원전 1호기가 노후 부품 파손으로 갑작스럽게 가동 중단되면서 부품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가받은 수명이 10년여 남은 상황에서 원전과 운영을 함께하도록 설계된 원자로 헤드, 증기발생기 등 주요 설비가 잇따라 교체되거나 교체 예정되면서다. 만약, 정기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조치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5시15분 한빛 1호기가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된 이유는 한빛 1호기 첫 가동부터 30년간 사용해온 고무 소재의 이음관이

파손됐기 때문이었다.

앞서 이날 새벽 4시12분 복수기(復水器)에서 저(低)진공 경보신호가 발생했다. 저진공 경보는 복수기와 터빈을 연결하는 이음관(고무신축 이음관)이 파손되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는 뜻이다. 원전 측은 복수기의 효율을 위해 진공상태로 유지하려고 3개의 진공펌프를 잇따라 가동시켰지만 파손 부위가 확대됐다.

한수원 측은 문제가 된 부품(이음관)의 교체주기는 따로 없지만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만큼 부분 정비보다는 이음관 전체를 교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파손된 부품이 15~18개월 주기로 진행되는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불안

감을 키우고 있다.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의 사고나 고장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전과 수명을 함께하는 주요 부품과 설비가 절반 수준에서 잇따라 교체되는 것도 문제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측은 증기발생기, 원자로 헤드 등 원전의 주요 설비나 부품의 경우 설계수명이 40년이라고 밝혔지만 한빛원전은 물론 한울원전 등 국내 원전 상당수에서 조기교체된 설비와 부품은 허다했다.

한빛 3호기의 원자로 헤드는 20년 만에 교체됐고(2015년),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의 경우 부품(세관) 파손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수천억원을 추가로 들여 2018~2019년 교체가 예정돼 있다. 한빛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수행한 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

전위원회와 승인을 받아 발전소가 가동되는데 자구 부품 고장, 부품 파손으로 인한 불시 정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운 기술사(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기계공학)도 “설계 수명의 제한이 없다고 원전의 수명만큼 해당 부품과 설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는만큼 정기점검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이 정기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검사 통과 후 불시 정지와 고장이 이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6년 8월 한빛 1호기부터 한빛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한빛 원전에서는 지금까지 총 147차례 불시고장이 일어났다. 발전소별로는 한빛 1호기 42회, 2호기 52회, 3호기 23회, 4호기 20회, 5호기 19회, 6호 10회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평=이준용기자 jylee@

MT 불참비까지 내라니...

광주 일부 대학 징수 물의...학생회 “참여 독려”

광주지역 대학의 일부 학교 학생회가 MT 등 학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참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학생회 임원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여지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조선대 신입생들에 따르면 최근 A학과 학생회가 2016년도 신입생들에게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MT를 안내하면서 참가자는 2만원, 불참자는 4만원을 내야한다고 공지했다. MT 불참자들에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배 많은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학과 한 신입생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저를 포함한 동기들은 4년간의 학생회비로 35만원을 냈고, (학생회비) MT예산도 안 포함한다고 했는데, 참가하지도 않는 학생들에게 불참비로 4만원씩이나 걷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과 선배들에게 여쭙보니 이전에도 MT 불참비라는 게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게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는 ‘학생회의 해명이 필요하다’, ‘불참비를 이해할 수 없다’ 등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상황이다.

해당 학생회 관계자는 “불참비는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 SNS에서도 일부 학교의 불참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대 한 단과대학의 동아리와 소모임에서 MT나 행사를 준비하면서 수년째 불참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불참비 논란은 이달 초 한 학교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현재 다른 학교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학생은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비용을 걷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회나 집행부가 인원 수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보다 행사 계획을 미리 세우고 행사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전 등 5개 공공기관

원전 투명경영 계획 마련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관들이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국전력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지난 29일 원전 안전 운영과 비리 예방을 위한 2년간의 운영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원전감독법 시행 이후 원전 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해 제출한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원전 관련 기관의 종합 이행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전 기관들은 앞으로 품질서 류 위·변조 검증절차 마련, 구매·계약 정보 투명 공개와 이익제기 절차 운영,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이행하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3.1절...집집마다 태극기

제97주년 3·1절을 앞두고 29일 광주시 서구 화정3동에서 서구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바르게 살기운동 회원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건 뒤 흥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학교가기 싫어하거나 과도한 용돈 요구땐 일단 의심

전남경찰 학교폭력 예방법

“이유 없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작은 일에도 짹짹 놀라며,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전남경찰이 급증하는 신학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과 2015년 2년간 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1253건에 달했다. 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신학기인 3월에 101건으로 크게 늘기 시작해 4월 181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 144건, 6월 137건, 7월 117건, 8월 52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여름방학이 지나고 9월 신학기에 다시 11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학년초 학급 편성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서열 다툼 등이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폭행이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모욕(9%), 따돌림(7%), 갈취(6%) 순이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촬영 등 성폭력 유형이 증가 추세다.

경찰은 신학기 학생들의 변화와 활동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학생의 경우,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작은 일에도 짹 놀라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고, 엄마·동생에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징후라고 설명했다.

가해학생은 비싼 물건을 남에게 빌렸다며 소지하거나, 귀가가 늦고 불규칙하며, 용돈보다 큰 씀씀이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박상우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소한 폭력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료부장·간호과장이 ‘나이롱 환자’ 행세

전남도, 강진의료원 감사...3명 직위해제키로

전남도가 강진의료원 허위 입원 비리 관련, 중간관리자 3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9일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우선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료부

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하고 앞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전남도 감사결과, 이들 3명은 모두 1~2차례 병가 없이 입원한 전력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또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직장 동료 ‘눈물의 대학 등록금’ 휴친 20대 여성 경찰서행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니며 공부하는 직장 동료의 대학 등록금을 휴친 20대 여성이 경찰서행.

○...지난 29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조모(여·23)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본촌동 한 회사 탈의실 사물함에서 직장

동료 A(여·20)씨의 현금 등 58만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

○...수사가 시작되자 불안감을 느낀 조씨는 무단결근했다가 경찰에 들미를 잡았는데,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퇴근 후 대학 등록금을 입금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조씨가 충동적으로 돈을 훔쳤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검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은)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함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적,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건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지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1. 서구 농성동 (토 41평, 건 45평) (1층 점포, 2층주택)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2. 서구 풍암동 (토 68평,건 170평) (1층 식당, 2층 사무실,3층주택)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3. 동구 총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의은행 광주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